토요저널
www.toyonet.co.kr

(2026년 10월 13일 화요일 5면)

김서윤 송파구의원 풍납2동 간판개선사업 현장 이틀간 점검

풍납2동 토성로 55 일대 간판개선사업 추진 현황 및 시공 상태 확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김서윤 의원은 풍납2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간판개선사업 현장을 이틀에 걸쳐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과 현장 정비 상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노후 간판 정비를 통한 거리환경 개선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업 마무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기 위해 진행됐다.

풍납2동 간판개선사업은 '2026년 개롱골장군거리 · 풍납2동 간판개선사업'의 일부로, 풍납2동주민센터 인근 토성로 55 소재 건물의 10개 업소, 20개 간판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사업은 불법 · 노후 광고물 정비와 벽면이용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업소당 평균 250만 원의 비용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서윤 의원은 이틀에 걸친 현장 방문을 통해 간판 설치 및 정비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거리경관과의 조화, 보행자 안전, 사업 마무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간판개선사업이 단순히 노후 간판을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의 이미지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풍납2동 구간의 간판 시공은 10월 8일 완료됐으며, 오는 11월 중 주민협의회를 통한 사업 완료보고 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만 이는 전체 간판개선사업 가운데 풍납2동 구간에 한정된 것으로, 개롱골장군거리 구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완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서윤 의원은 "간판은 거리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주민과 상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거리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사업 추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지역 상권의 활력과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